

생 명 생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를 생각하며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지켜 보호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주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3. 오늘 바울 남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4. 다음 주 12월 1일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목장 모임을 통해 복된 교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목장 12월 15일 주일 / 김종원(하영) 형제님 자택
미얀마, 니카라과 목장 연합 12월 14일 토요일 / 한광기 장로님 자택
6. 연말 재정 모임을 알려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재정위원회(제직회 서기, 재정부)
12월 3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재정운영위원회(신.구 회장)
12월 8일 주일 오후 5시에 정기 제직회로 모입니다.
12월 29일 주일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

12월 예 배 위 원

안 내	박래석		박승화			
기 도	한정임(1)	한규철(8)	김정신(15)	한미숙(22)	조창(29)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교회 학교	청년회	수요 제자 양육	금요 제자 양육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7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편 118편 28절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추수감사주일예배 2024년 11월 24일 오후 1시

묵상 기도 / 다같이

*찬송 / 다 감사드리세 / 찬송가 66(신) 20(구)

*성시 교독 / 교독문 106번, 감사절(2)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감사하는 성도여 / 찬송가 587(신) 306(구)

기도 / 박래석 집사

성경 봉독 / 골로새서 2장 1-7절 / 다같이

특송 / 산마다 불이 탄다 / 최명희 김정신 조은영 한규철 조창

말씀 선포 / 주님이 말씀하시는 감사 / 박화신 목사

간증 / 다같이

찬송 / 논밭에 오곡백과 / 찬송가 590(신) 309(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저 밭에 농부 나가 / 찬송가 591(신) 310(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말씀 요약

1.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이 보물을 잘 알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의 경건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3.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등등에 관하여 속이는 사탄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고 주위에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4. '감사'는 말씀에 뿌리박고 말씀에 굳게 서야 가능해 지는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그 감사가 주님의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3-24년 표어

행하는 교회

> 뿌리를 박으라

골로새서 2장 6-7절

> 세움을 받으라

6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 굳게 서라

지난 주일 설교 요약 / 남은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 히 11:39-40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의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선물과는 달리 우리 마음대로 오용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용 설명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해 줍니다.

믿음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모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배를 만들다 보니 엄청난 구원의 집이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말씀)을 따라 그저 가다 보니 살기 좋은 정착지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할 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지요. 상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입니다.

“아! 그분은 참 믿음이 좋으서” 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길 축복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신다는 칭찬도 있겠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두려워 하는 참된 믿음을 칭찬 많이 받으시길 축복해요. 그럴 때 마다 그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인 것을 바로 알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믿고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